

한국문학사를 가로지르는 언어·문화·역사의 계기들

- 일본 저술 한국문학사의 한국근현대문학 인식과 서술양상을 중심으로 -*

윤 송 아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 중에서 임전혜의 『일본에서의 조선인문학의 역사-1945년까지』와 시라카와 유타카의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 그리고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한국문학을 맛본다』를 중심으로 각 문학사에 나타난 한국근현대문학의 인식방법 및 서술양상을 '문화횡단'이라는 관점 아래 고찰하고 있다. 먼저 임전혜는 일본유학생들의 문학 활동과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산출된 조선인 문학을 시기별로 고찰하면서 한·일간의 능동적인 문화교섭과 상호이해, 정치적 연대의 지점들을 짚어낸다. 시라카와 유타카는 근대문학 형성과정에서의 한중일 삼국의 동시성과 연관성에 주목하고 일본어 문학과 친일문학 등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계에서 충돌하는 매개적 연구자로서의 중층적 위치성을 보여준다. 사에구사 도시카쓰는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비교문화적 고찰,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학적 형식과 주제의 구현, '친일문학'을 바라보는 탈경계적 시선 등을 통해 한국문학의 내적 논리와 외연을 두루 살피는 흥미로운 문화횡단적 계기들을 제공한다. 이들 문학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화횡단적 실천 양상은 첫째, '민족문학사'를 근간으로 한 기존의 한국근현대문학사를 '식민지 경험'과 '국가민족주의'라는 자장에서 이화(異化)시켜 다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존 한국문학사의 서술양상을 보완하는 입체적이고 미시적인 문학사 서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셋째,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비교문화적 관점의 수용을 통해 확장되고 열린 문학사 서술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 넷째, 재일조선인문학, 일본어 문학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5939).

의 발견을 통해 한국근현대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고 토대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주제어 :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 임전혜(任展慧),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寿勝), 문화횡단

1. 들어가는 말

‘자국(국/민족)문학사’ 서술은 기본적으로 근대적 현상¹⁾이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자국의 언어와 전통, 문화와 역사를 근간으로 하는 문학적 집적물을 세계사(서구)의 보편원리를 참조하여 구획함과 동시에 하나의 고유한 민족적 실체이자 역사적 전범으로서 변별하려는 움직임이 각 국민국가의 개별 문학사 서술이라는 형태로 수행되어 왔다. 동일한 한자문명권 아래 역사적, 문화적 친연성을 강조해왔던 한국과 중국, 일본은 19세기 이후 서세동점의 위기를 맞아 외부(서구)와 내부(동아시아)를 동시에 모방, 견제하는 방식으로 당대의 상황에 대처해왔으며, 이러한 주체와 타자라는 근대의 이분법적 구도에 기초하여 각 민족국가의 언어와 문화, 인식체계를 담보로 한 ‘자국문학사’를 구축해나갔다. 가장 먼저 일본에서 1890년, 최초의 자국문학사인 『日本文學史』(三上參次·高津鰻二郎)가 저술되었으며, 중국에서는 1910년 『中國文學史』(黃人)가, 한국에서는 1922년에 최초의 문학사인 『朝鮮文學史』(安廓)가 저술되었다.²⁾ ‘자국 국민의 민족성(특수성)을 문학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³⁾이든 ‘보편성(보편적 가치 혹은 법칙)의 독자적 구현’⁴⁾이든, 동아시아의 세 국가를 둘러싼 시대적 추이와 이념, 당위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각국의 문학사 저술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와 제2차 대전 이후

1) 류준필,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 소명출판, 2013, 294쪽.

2) 위의 책, 294-295쪽 참조.

3) 위의 책, 305쪽.

4) 위의 책, 320쪽.

의 이념적 대립 및 사회구조의 지각변동, 이동과 분화라는 세계사적 계기들과 조우하면서 복잡다단한 형태로 확장, 변용되어갔다.

36년간 일본의 직접적인 식민 지배 아래 놓여있었던 한국(조선)의 경우 독립적인 국민국가를 설립하려는 근대 기획이 좌절되면서 ‘모방과 굴종, 창조와 저항’이라는 양가적 속성을 지니는 독특한 식민지 문화⁵⁾가 근대문학사의 성격과 서술방향을 규정지었으며, 해방 이후 남북의 분단과 상반된 정치경제 체제의 구축은 남한문학사와 북한문학사라는 이종의 자국문학사 기술로 이어졌다. 또한 식민지 지배로 말미암은 자·타율적 이산과 민족 이동의 과정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구미 지역으로 산포된 한국판 디아스포라를 강제했으며, 근 한 세기를 이어온 이들의 문학 활동은 우리의 문학사를 ‘자국문학사’의 범주에서 탈주시켜 이화(異化)와 혼종의 통합문학사 서술로 이끈다. 이제 근대적 기획에서 출발한 ‘자국문학사’는 ‘역사’, ‘민족’, ‘자국어’라는 국민국가적 인식틀의 폐쇄성과 일면성을 뛰어넘어 상호소통과 적극적 접합의 장에서 산출되는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한 관점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된 것이다. 남한문학사와 북한문학사, 해외한인문학사를 아우르는 통일문학사의 수립은 이제 단일민족국가, 근대국민국가라는 내부적 함의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및 세계사적 시각 아래 상호 문화적 충돌과 교섭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공동의 역사적 물음에 답하는, 타자를 향해 발산되는 문학사 서술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상상’에 골몰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의 발간 현황 및 대표 저술서에 나타난 ‘한국근현대문학’의 인식방법과 서술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 저술 한국근현대문학사와 현재 남한과 북한에서 산출된 문학사 간의 인식적 합의와 균열 양상, 주요 문학자, 문학작품의 선별과 평가에 내재한 통합과 결락, 낙차의 지점, 일본의 자장 아래 놓인 연구자의 경계적/탈경계적 위치성이 문학사 기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문화횡단적 실천 양상’이라는 맥락 아래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문학사를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은 객관적 거리를 확보한 가치중립성과 자국의 관습적 판단기준에 근거한 오인과 굴절의 과정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변용과 확장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특

5)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1896-1945)』, 민음사, 2002, 31쪽.

히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언어, 문화, 역사적 관계망들이 불가피하게 중층적 상호침투의 가능성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학적 현상은 더욱 면밀히 조망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⁶⁾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는 대략 8종(기존 남북한 문학사의 번역본 제외)에 이른다.⁷⁾ 이 중에서 한국의 근현대문학사를 다루고 있는 저서 및 저술은 임전혜(任展慧)의 『일본에서의 조선인문학의 역사-1945년까지(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学の歴史—1945年まで)』와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의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朝鮮の近代文学の歩み)」, 그리고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寿勝)의 『한국문학을 맛본다(韓国文学を味わう)』이다. 아직까지 ‘한국근현대문학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문학사 단행본은 정식으로 출간되지 않았으나 위의 세 저서는 일본에서의 한국근현대문학사 기술의 다양한 접근방법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선행 연구작업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일본에서의 한국문학사 저술은 ‘고전문학사’에 치중되어 있는 형편이며, 특히 식민지와 해방 이후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역동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현대문학에 대한 사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현대문학사를 다룬 위의 세 저서는 각 저자의 사회역사적 위치, 연구 환경, 문학에 대한 인식방법 등에 따라 뚜렷이 변별되는 특징과 성취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세 저서를 중심으로 각 한국문학사에 나타난 한국근현대문학의 인식방법 및 서술양상을 문화향단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가 어떻게 기존 남북한

6) 서재근,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연구 시론」, 『세계문화비교연구』 18, 세계문화비교학회, 2007.; 서재근,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재고」, 『일본언어문화』 12,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08.; 장사선, 「일본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역사적 반성 및 협동 연구 전망」,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정현숙, 「북한, 중국, 일본의 한국현대문학사에 대한 인식(1)」, 『인문과학연구』 2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참조.

7) ①金思燁·趙演鉉, 『朝鮮文學史』, 北堂社, 1971. ②金思燁, 『朝鮮文學史』, 金澤文庫, 1973. ③金東旭, 『朝鮮文學史』, 日本放送出版協會, 1974. ④卞宰洙, 『朝鮮文學史』, 靑木書店, 1985. ⑤金允浩, 『物語 朝鮮詩歌史』, 彩流社, 1987. ⑥任展慧, 『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学の歴史—1945年まで』, 法政大学出版局, 1994. ⑦白川豊, 「朝鮮の近代文学の歩み」, 『豊かな地球社会への展望』, 九州産業大学出版會, 1997. ⑧三枝寿勝, 『韓国文学を味わう』, 国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 1997.

문학사, 그리고 일본 자국문학사와 교섭, 충돌하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환기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일본 저술 한국문학사의 한국근현대문학 인식방법과 서술양상

1. 임전혜(任展慧), 『일본에서의 조선인문학의 역사-1945년까지(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学の歴史—1945年まで)』

임전혜(任展慧)의 『일본에서의 조선인문학의 역사-1945년까지(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学の歴史—1945年まで)』는 저자의 호세이대학(法政大學) 박사학위 논문⁸⁾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1937년 도쿄 출생의 재일조선인 2세대로, 도쿄 조선고등학교 졸업 후 1957년에 호세이대학 문학부 일본문학과에 입학한 임전혜는 호세이대학 조선문화연구회의 조선인 학생들과 함께 『학지광』 발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국문학과 재일조선인문학을 화두로 삼고 지속적인 연구와 비평 작업을 수행해나간 선구적 연구자이다. 재일조선인으로서 민족교육과 일본의 대학교육을 동시에 경험한 이력은 저자가 남북한문학과 일본문학, 재일조선인문학을 아우르는 복합적 언어, 문화, 역사인식을 문학연구의 중추로 삼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머리말에서 “현재의 재일조선인의 활발한 문학 활동을 그 처음 시기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제1부에서는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일본에서 조선어·한문을 사용하여 수행된 문학 활동을 다뤘다. 제2부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서 조선어·일본어를 사용하여 수행된 문학 활동을 다뤘다”⁹⁾고 언급하고 있듯이, 본서는

8) 저서의 연구자 소개에는 ‘1977년, 法政大學大學院人文科學研究科日本文學專攻博士課程 修了’라고 써어 있으나, CiNii 검색에 의하면 「一九四五年以前の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學活動について」라는 제목의 임전혜의 호세이대학 문학박사논문의 학위수여 연월일은 1985년 3월 28일로 되어 있다.

1880년 이후 1945년까지 일본을 근거지로 이루어진 조선인의 문학 활동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시대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1부에서는 1880년대 이수정, 유길준 등의 문필활동을 시작으로 한말기(韓末期)와 1910년 이후의 일본유학생들의 문학 활동을 『학지광』, 『창조』, 『해외문학』 등의 유학생 기관지와 문예동인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조선인의 일본 도향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920년대 후반부터 제3전선사, 무산자사, 동지사를 거쳐 코프·조선협의회로 수렴되기까지의,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과의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독자적/협력적인 문학 활동을 수행해온 ‘재일조선인’의 문학 활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¹⁰⁾

임전혜의 문학사는 개화기에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조선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근대적 언어의식의 발흥, 식민지 지배에 따른 일본과 조선사회의 영향관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의 세계사적 동향 등, 언어, 민족, 사상이라는 당시 조선과 일본을 관통하는 실천적 의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를 시대적 흐름과 교차시키는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일조선인’의 문학사를 점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한국의 근현대문학사가 본서 1부에서 다룬 일본 유학생들의 제반 문학 활동-언문일치라는 민족어(국어)의 발견, 근대적 문학개념과 창작방법의 모색, 개화계몽과 문명전파라는 선구적 지식인의 실천 양상 등-을 기반으로 백화만발해왔다는 주지의 사실을 감안할 때 본서는 ‘재일조선인’의 시각으로 한국문학사를 규명하고 비판적으로 조망하고자 한 중요한 연구서라 할 수 있다. 또한 2부에

9) 任展慧, 앞의 책, 2쪽.(이후 ‘일본 저술 한국문학사’의 인용은 해당 본문에 쪽수만 표시한다. 인용문의 한국어 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한 것이다. 한국/조선, 한국어/조선어 등 시대나 지역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는 용어들은 원서의 한자를 직역하는 방식을 따랐다.)

10) 본서의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작하며/제1부 제1장 여명기의 문학 활동 제1절 이수정의 활동 제2절 유길준과 『서유견문』 제2장 일본유학생들의 문학 활동 제1절 한말기의 일본유학생들 제2절 ‘1910년’ 이후의 일본유학생들 제3절 유학생들의 문예동인지 발행 I. 『창조』 II. 『해외문학』 제4절 유학생잡지의 일본문학 소개/제2부 제1장 재일조선인의 형성과 문학 활동 제1절 조선인의 독자적 운동 제2절 일본인과의 합동에 의한 운동 제2장 1945년 이전에 있어서의 조선인의 일본어에 의한 창작 제1절 일본어에 의한 시와 시인들 제2절 일본어에 의한 소설과 작가들/마무리하며/1945년 이전 일본에서의 조선인문학 연표/발문-경과, 인품, 해명 :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 秀雄)”

서 다루고 있는 조선인의 일본어 창작 활동과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단체와의 협업 및 연대활동은 카프(KAPF)로 대변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과 밀접히 연계되면서도 조선과 일본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급박하게 이화(異化)되어가는 당대 문학현장의 동향을 보여준다. 언어(조선어/일본어 창작)의 선택과 강제 의 문제, 친일문학자들의 균열과 욕망의 문제 등, 공동의 문학사적 해결과제를 제기하는 교차적 접근지점도 눈에 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각 목차별로 중요한 몇 가지 논점들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임전혜가 제1부 제1장 ‘여명기의 문학 활동’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이수정과 유길준이다. 유길준은 최초로 국한문을 혼용한 책¹¹⁾인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의 저자로서 어느 정도 근대문학사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수정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임전혜는 1882년 일본 사절단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도일한 이수정을 “근대 일본에 있어서 문필활동을 한 최초의 조선인”(13쪽)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성서의 조선어 번역에 착수하여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新約マルコ傳福音書諺解)』(1885)를 간행함으로써 “언문일치와 한글보급의 길을 개척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근대조선문학의 토대를 준비한 것이다. 이수정의 한글 번역 성서가 조선근대번역문학사의 첫머리에 기록되는 까닭”(21쪽)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수정의 선구자적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에서 간행된 『금오신화(金鰲新話)』(1884)의 발문 저술, 『명치자전(明治字典)』(1885)의 편집자로서 「한음훈(韓音訓)」의 표기를 담당한 공적들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수정은 1886년 귀국 후 거의 바로 처형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의 일본에서의 문필 활동과 언문일치, 한글보급 등의 문학적 시도들이 한국문학사 안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임전혜는 일본에서 활동한 최초의 문필가로 이수정을 ‘조선문학사/재일조선인문학사’ 안에 복권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유길준에 대해서는 “근대조선에 있어서 민족운동의 한 형태로서 국문운동의 단초를 개척한 선구자”(강재삼)(42쪽)라는 평가를 받아들이면 서도 『서유견문』과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西洋事情)』(1866-1870)의 관련성이 한국문학계 안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11)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82쪽; 권영민, 앞의 책, 58쪽 참조.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유길준 자신이 “타인의 책을 참고하여 번역한 것도 있다”(49쪽)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관 관계가 1974년에서야 김태준의 연구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점을 들어(50쪽) “『서유견문』을 유길준의 독자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의한 잘못된 평가”(52쪽)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임전혜는 이수정, 유길준의 근대초기 문학 활동이 일본과의 긴밀한 연계와 교섭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활동 지역의 제한성(조선이 아닌 일본)이나 민족주의적 시선으로 이들의 문학 활동을 배제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일견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2장 ‘일본유학생들의 문학 활동’에서는 한말기(韓末期)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간행된 조선 최초의 잡지인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1896.2-1898.4), 일본에 유학했던 최초의 조선여자유학생인 윤정원의 평론이 실린 『태극학보(太極學報)』, 최남선의 국문시, 이광수의 단편소설 등이 발표된 『대한학회월보(大韓學會月報)』,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 등을 중점적으로 논하면서 초기 일본 유학생들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¹²⁾ 즉 일본의 조선인유학생들은 단순히 선진문명의 전수자나 일시적인 담지자라기보다 기관지 발행 등을 통해 조선의 지식인, 대중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종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다. 근대 국어국문운동의 가치를 선취하고 스스로 실천해나간 일본 유학생들의 문학 활동은 한국근현대문학의 토대를 세우는 데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유학생들의 활동상을 한국문학사 안에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임전혜의 저술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14년 창간되어 1930년까지 총 29권이 발행된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기관

12) 임전혜는 한말기 유학생의 역할에 대해 “유학생들의 국문주장론은 국권을 회복하고 자주독립을 지키려는 애국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조선에 있어서 애국계몽 학회지에 국문문제의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었던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중략) 유학생들은 조선에서의 국국운동에 방향을 부여하고 또 그 일환으로 활동했다. 한말기 유학생 잡지의 지면에 넘쳐난 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에 대한 위기의식과 동포에게 민족적 자각을 촉구하는 애국의 호소이다. 일본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국권회복의 훌륭한 담당자가 되려고 했던 유학생들의 진정한 열의와 긴장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73-74쪽)라고 언급하고 있다.

지 『학지광(學之光)』 또한 이광수, 전영택, 이익상, 최승구 등의 문학적 발언대이자 단련 공간이었으며, “서구문화와 일본문화를, 1910년대에서 1920년대의 조선에 전파한 창구의 하나”(86쪽)였다. 『학지광』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논의는, 한국에서 자유시의 효시로 알려진 주요한의 「불노리」(『창조』 창간호(1919.2)) 발표 시기보다 4년 빠른 1915년에 김여제(金興濟)에 의해 『학지광』에 자유시 3편이, 류암(流暗)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다는 주장으로, 근대자유시의 효시에 대한 일종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80쪽) 이밖에도 한국문학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창조』, 『해외문학』 등의 문예동인지에 대한 설명이, 주요한, 김동인, 전영택, 최승만, 이하윤 등의 시, 소설, 평론, 에세이, 번역문의 자세한 소개와 평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대체로 시대별 주요문인들의 활동상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국의 문학사 서술방식과 비교할 때, 유학생 기관지나 문예동인지를 통해 집단적, 논쟁적으로 이루어진 근대문학의 개념정립과 실천방안의 면모를 치밀하게 제시하고 있는 임전혜의 서술방식은 한국의 근대문학사가 한 개인의 문재(文才)나 공과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유학생이나 당시 지식인들의 치열한 공방과 집단지성의 공동체적 발현에 의해 구현된 것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제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정치·문학 활동 단체와의 교섭과 연대, 그리고 조선인의 일본어 창작과 일본 문단에의 진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임전혜가 본서의 부록인 「1945년 이전의 일본에서의 조선인문학 연표」에 따라 분류한 조선어와 일본어 작품수를 비교하면, 1883년¹³⁾부터 1925년까지는 조선어 작품수가, 그리고 1926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어 작품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¹⁴⁾ 1925년 이전까지는 일본인 유학생들에 의해서 조선어작품이 다수 산출된 반면, 1926년 이후에는 조선인들

13) 임전혜는 1883년에 발표된 이수정의 평론 「蛇鱸說」(『農業雜誌』 180호)을 일본에서 저술된 최초의 조선인문학으로 보고 있다.

14) 1883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서 조선어와 일본어로 쓰여진 작품 총수는 1488편에 이른다. 이중 조선어 작품총수는 788편이며, 그 내역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06~1915년(325편), 1916~1925년(265편), 1926~1935년(138편), 1896~1905년(41편), 1936~1945년(14편), 1883~1895년(5편) 순이다. 또한 일본어 작품총수는 700편으로, 1936~1945년(379편), 1926~1935년(273편), 1916~1925년(45편), 1906~1915년(2편), 1896~1905년(1편) 순이다.(임전혜, 앞의 책, 233-235쪽 참조)

의 일본 도향 급증,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과의 연계, 일제의 탄압과 착취의 심화 등으로 일본을 근거지로 한 일본어 문학 활동이 활성화된 까닭이다. 따라서 일본 유학생을 매개로 조선과 일본에서 동시에 꽃피웠던 초기 한국근대문학사는 1920년대 후반 카프의 문학 활동 시기를 기점으로 분화, 확장되는 면모를 보인다. 1927년 동경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제3전선사(第三戰線社)’(‘카프·동경지부’)가 카프의 방향전환을 이끌고, 코민테른 12월 테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등과 맞물려 ‘무산자사(無産者社)’가 카프의 불세비키화를 주도하는 등 일본을 근거지로 결성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 단체는 카프의 조직전환과 이념투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카프의 해소와 공산당 검거 등 식민지 상황의 악화에 따라 1930년대 이후 조선과 일본에서는 상이한 형태의 문학사적 흐름이 전개된다. 조선에서는 리얼리즘 문학과 더불어 모더니즘과 순수문학의 발흥이 주를 이루게 되며, 일본에서는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예술운동과의 긴밀한 연계 및 일본 문단에의 적극적 진출을 통해 ‘재일조선인문학’의 전사(前史)를 마련해나간다.

‘무산자사’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붕괴되었던 일본의 조선인 문학예술운동 공동체는 1931년 ‘동지사(同志社)’ 결성을 계기로 재정비된다. ‘동지사’의 결성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 예술가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주체적으로 타개하려는 자세의 확립을 시작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동시에 조선과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예술운동의 교류와 연대를 위한 (그들의) 매개적 역할을 스스로 명확히 내세우는 것으로, ‘재일본’이라는 조건을 충분히 살린 것”(166-167쪽)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1932년 해체되어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コップ)의 ‘조선협의회(朝鮮協議會)’로 전환되었지만, ‘동지사/코프·조선협의회’는 조선어 잡지 『우리동무(ウリトム)』를 통해 민족의 언어와 독자성을 쟁취하는 문학예술운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예술운동과의 적극적인 교섭과 연대를 통해 국제적 탈식민주의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후 김희명, 김용제, 장혁주, 홍종우, 김사량 등의 일본어 창작 문학자들에 의해 조선인의 일본문단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에서의 조선인문학사는 ‘재일조선인문학사’로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임전혜는 ‘동지사’의 해체 등과 관련해 일본에서의 조선인 문학예술운동의 민족적 주체의식의 취약성을 비판하면서도 일본문

단과 운동단체의 적극적인 연대와 도움으로 조선인의 문학 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전혜의 『일본에서의 조선인문학의 역사-1945년까지』는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견인하는 ‘재일조선인’의 중층적 시각에서 1880년대 이후 1945년까지의 한국근대문학사를 치밀하게 규명하고 있다. 한국근대문학의 원류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학사적 성과들이 일본이라는 토양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섭과 문화적 충돌 아래 생성되어왔다고 했을 때, 임전혜의 문학사적 고찰은 암묵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온 일본에서의 한국근대문학사 형성의 제 과정들을 좀더 폭넓은 시선으로 조망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종(異種)의 문학사로서 재일조선인문학과 한국문학의 상관성을 긴밀하게 추적하면서 총체적으로는 남북한문학사, 재일조선인문학사, 그리고 일본문학사와의 연관성 및 영향관계를 토대로 ‘한국문학사’를 새롭게 구축할 의미 있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朝鮮の近代文學の歩み)」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의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朝鮮の近代文學の歩み)」¹⁵⁾(이하 「발자취」)는 『풍요로운 지구사회에의 전망(豊かな地球社会への展望)』이라는 저서의 한 목차로 구성된 63쪽 분량의 짧은 한국문학사 저술이다. 시라카와 유타카는 1975년 도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1979년 한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1985년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1989년 12월 동대학원에서 『장혁주 연구(張赫宙研究)』¹⁶⁾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규슈산업대학교 국제문화학부 교수이다. 시라카와 유타카는 일본의 대표적인 2세대 한국근현대문학 연구자로 『식민지기 조선

15) 白川豊, 「朝鮮の近代文學の歩み」, 『豊かな地球社会への展望』, 九州産業大学出版會, 1997.

16) 본 박사학위논문은 세 편의 보론과 함께 단행본으로 엮여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의 작가와 일본』¹⁷⁾, 『조선근대의 지일파작가, 고투의 궤적』¹⁸⁾ 등의 저서를 통해 일본인 연구자의 시각으로 한국근현대문학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발자취」에서도 간결한 문학사 기술 안에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저자의 독특하고 일관된 인식방법과 서술양상이 드러나 있다.

「발자취」는 “조선의 개화기문학을 맡은 대표적인 작가인 이인직이 일본 유학에서 귀국해서 소설 『혈의 누』를 발표했던 1906년부터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하는 1945년까지 약 40년간”(301쪽)을 근대문학 시기로 잡고 대체로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전기(轉機)가 된 문학사적 사건이나 경향, 작가, 작품, 잡지를 주요 표제로 하여 시대순으로 기술하고 있다.¹⁹⁾ 일견 한국의 일반적인 문학사 서술과 유사하지만, 문학사 기술의 방향성 및 서술방식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면모를 보인다. 먼저 주목할 것은 한국문학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한·중·일의 시대적, 문학사적 흐름을 동시적으로 고찰하려는 비교문화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시라카와는 「발자취」의 서두에서 “삼국의 근대문학 형성에 이르는 행보가 서로 대비할 수 있는 동시성을 보여준다. 일본은 (중략) 본격적인 근대소설이 쓰여진 패턴은 삼국과도 거의 같고, 게다가 조선의 경우는 중국보다 오히려 1, 2년 앞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만의 행보를 쫓는 것이 아니라 대비 가능한 동양 삼국의 근대문학의 형성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 조선 근대문학의 전개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301-304쪽)라고 언급한다. 협소한 지면에서 이러한 한·중·일 근대문학의 동시성을 구체적으로 구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자는

17) 白川豊, 『植民地期朝鮮の作家と日本』, 大學教育出版, 1995.

18) 白川豊, 『朝鮮近代の知日派作家, 苦闘の軌跡: 廉想涉, 張赫宙とその文學』, 勉誠出版, 2008.;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 『한국근대 知日작가와 그 문학연구』, 광형덕 역, 깊은샘, 2010.

19) 「발자취」의 목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화기-조선 근대문학 초창기 문인들 2. 이인직과 ‘신소설’ 『혈의 누』 3. 최남선과 창가, 신체시 4. 이광수와 장편소설 『무정』 5. 문예동인지의 출현- 『창조』, 『폐허』, 『백조』 6. 염상섭과 리얼리즘의 추구 7. ‘신경향파’ 문학의 대두 8. 농촌소설과 브나로드 운동 9. 채만식과 세태풍속소설 10. 조선 근대시의 성숙 11. 구인회와 ‘순수문학’ 12. 여성작가의 등장과 활약 13. 양대 문예지 『문장』, 『인문평론』 14. 일본어 문학의 등장 15. ‘일제’ 말기(1941-45년)의 여러 가지 양상”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문학사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연관성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그 가능성에 대한 견해나 암시들을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저자는 조선 문인의 경우 유학생의 비율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유난히 높은데, 그 대부분이 15세 전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중등교육을 받은 젊은 유학생으로, 따라서 이들의 원초적 경험과 사상적 영향관계, 그리고 한일병합 등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조선 근대문학의 행보는 항상 일본과의 관계 및 영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304쪽 참조)는 견해를 제시한다.²⁰⁾ 또한 염상섭의 『삼대』를 분석하면서 “같은 해에 발표된 중국의 파금(巴金)의 장편 『家』(1931, 원제는 『격류』, 1933년 단행본화)도 1919년의 5·4운동 전후 대가족의 삼대에 걸친 의식의 차이를 그리고 있으며, 자식 세대인 각혜(覺慧)의 삶이 덕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은 흥미로운 일”(321쪽)이라고 부연하고 있다²¹⁾. 주로 한국과 일본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언급들은 어느 정도 공인된 문학사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에게 한국문학은 평소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분야”(301쪽)라는 상황 아래서, 일본 독자들에게 이러한 독서경험의 의의를 증폭시키려는 시도로서 한국문학과의 친연성 및 비교문학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문학자나 문학작품을 설명하면서, 연상되는 일본의 문학자나 문학작품을 대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 또한 일본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을 친숙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면 관계상 해당 언급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역사적, 문학사적 영향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 작업이 동반되지는 않지만, 추후 한·중·일 문학작품의 비교문학적 연구의 단초를 제시

20) 사실상 이러한 논의는 이미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라 하겠다.(시라카와 유타카, 「韓國近代文學草創期の 日本的影響-文人들의 日本留學體驗을 中心으로-(이인직·최남선·이광수·김동인·전영택·염상섭·현진건)」,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석사학위논문의 목차 중 “중국 및 일본문인들의 유학과의 비교” 부분은 아마도 「발자취」 서두의 <표2. 한·일·중 삼국근대문인의 유학시기 일람>(303쪽)의 기본 자료가 되었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 중국의 문학을 동시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방법의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1) 이러한 견해는 이미 저자의 선행연구에서 구명되고 있다. 시라카와 유타카, 「韓·中·日 近代小説에 나타난 <家>」, 『한국문학연구』 1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5.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²²⁾.

다음으로 「발자취」의 전반적인 서술양상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한국문학사의 시기구분과 서술양상을 따르되 저자의 「관심과 이해의 범위에서 근대문학사 상(上)의 몇 가지 주제를 엮어서 정리」(301쪽)하고 있다. 주로 소설가와 소설작품에 치중하여 각 시기별, 주제별 문학작품을 선별하고 있는데 목차 구성과 세부 내용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문장』과 『인문평론』이 창간된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문학사가 13, 14, 15장에 걸쳐 비중 있게 제시된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1930년대 중반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일본의 군국주의 강화와 사상적 탄압, 내선 일체론과 황민화정책의 시행, 1941년 이후 한국어 사용의 전면 금지 등은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암흑기’로 일컬어질 만큼 민족어 창작과 사상적 전개가 불모의 공간으로 들어갔던 시기이다. ‘저항/친일문학’이라는 이분법적 구획으로 포괄될 수 없는 개별 작가들의 문학 활동과 사상적 고투의 과정들

- 22) 한일 문학자 및 문학작품과의 비교 문장들을 전체적으로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인직(1862~1916)은 (중략) 일본의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처럼 연극 개량에 뜻을 두어(305쪽)/(『월의 누』)의 후편은 사랑과 음모의 소용돌이 『금색야차(金色夜叉)』를 닮은 이야기가 되어갑니다(307쪽)/(최남선의 「경부철도가」는 일본의 「철도창가」와 같이, 새로운 문명의 영향을 강조하고는 있는데(310쪽)/(이광수의 『무정』에서) 일본의 근대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뜬구름(浮雲)」(1887)의 주인공처럼(314쪽)/(이기영의 『고향』에서) 일본의 토쿠나가 스나오(徳永直)의 「태양 없는 거리(太陽のない街)」(1929)가 상기 될지도 모릅니다.(324쪽)/(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에서처럼) 일본에서도 한 때 고등유민(高等遊民)의 문제가 소설의 주제로 되었습니다(331쪽)/(박용철의 「고향을 그리면 무엇하리」에서) 무로 사이세이(室生犀星)의 ‘고향은 멀리 있어 그리운 곳...’ 등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요.(340쪽)/(이태준의 「까마귀」에는) 호리 다쓰오(堀辰雄)의 「바람이 분다(風立ちぬ)」를 연상시키는 담담한 필치로(344쪽)시의 정지용은 (중략) 조선의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344쪽)/(이상의) 기상천외한 기법은 사실 일본의 모더니즘 계열의 시 잡지 『시와 시론』(1928~33)의 시인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결코 그만의 독창적인 것은 아닙니다(345쪽)/(최정희의 「가버린 미래」는) 당시 일본으로부터 진출한 천리교에 대한 저자의 포착 방법이 엇보이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349쪽)” 각 비교항목의 타당성 검증, 기(既) 비교연구사 검토, 실제적인 항목별 비교연구 등은 일단 추후 과제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비교 제시가 갖는 서술적 의의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이 당시 발표되거나 발표되지 못한 작품의 면면에 다양한 형태로 스며들어 있다 해도, 여전히 1940년대의 한국근대문학사는 논쟁과 성찰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발자취」에서 이 시기에 산출된 일본어 문학을 한국문학사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조선에서 『국민문학』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어 창작은 기본적으로 ‘친일’이라는 범주에서 강제/선택된 창작행위였다. 따라서 한국문학사에서는 아직까지 이 시기의 ‘일본어로 쓴 문학’을 본격적인 서술 범위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14장에서 저자는 당시 일본에서 활동했던 장혁주와 김사량의 ‘일본어 문학’과 조선에서 창작된 이석훈의 ‘일본어 작품’을 함께 언급하면서 한국문학사 안으로 무리 없이 편입시키고 있다. 같은 창작언어라 하더라도 조선에서 쓴 일본어 작품과 일본을 근거지로 쓴 일본어 작품은 앞서 임전혜의 저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 생성과정과 창작동기가 상이하다. ‘일본어로 쓴 문학’도 한국문학인이라는 속문주의적 논의와는 별개로, 장혁주와 김사량, 이석훈을 동일한 ‘일본어 문학의 등장’이라는 범주 안에 묶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근현대문학사를 다루면서 ‘일본어 문학’을 포괄한다는 것은 대체로 민족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문학’이라는 개념을 이화, 혹은 확장하여 조선인의 일본어 작품이나 재일조선인문학까지 한국근현대문학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탈경계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때의 일본어는 단지 창작의 도구인 하나의 언어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일조선인문학, 혹은 근대 초기에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서 창작된 일본어 작품과, 일제 말기 민족어 말살 정책에 편승하여 일본어로 쓴 작품은 분명히 일정한 기준 아래 변별하여 평가, 고찰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석훈의 『조용한 폭풍』을 비롯하여 『국민문학』에 발표된 작품들에서 “조선 문인들의 비명”(357쪽)을 읽어내는 맥락이나 “조선어 발표 기관이 격감한 가운데 일본어 표현력이 있는 문인은 이광수 이하 많은 작가가 일본어로도 작품을 썼습니다. 반대로 일본어 실력이 없는 작가는 완전히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357쪽)라고 언급하는 대목을 살펴볼 때, ‘친일문학’ 및 일제 말기 일본어 작품에 대한 저자의 인식에는 ‘일본어’에 대한 다소 가치 중립적인(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맥락이 일정 정도 거세된) 판단 혹은 일본인 연구자로서의 양가적인 감정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²³⁾ ‘친일/일본어

문학'의 생산과정은 유감스럽지만, 노골적인 국책 선동의 일본어 작품이 아니라면 작품 안에 내재된 중층적 의미망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학이 처한 제 양상을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제언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두 번째로 특기할 것은 '한국문학사'에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 특정 작가 혹은 작품이 흥미롭게 분석,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장혁주(『무지개』, 『아귀도』), 김사랑(『빛 속으로』, 『바다의 노래』) 외에도 이석훈(『황혼의 노래』, 『회색거리(灰色街)』, 『조용한 폭풍(靜かな嵐)』)의 작품이 여러 번 등장한다. 친일행적 등으로 한국문학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이석훈을 저자는 『발차취』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친일문학자'에 대한 저자의 인식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²³⁾ 여성작가 중 한 명인 최정희를 다루면서 「홍가」 등 일반적으로 당시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 아닌 「가버린 미래」를 선택한 점도 흥미롭다. 앞서 인용한 대로 당시 일본으로부터 전파된 천리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일본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박용철의 시 「고향」을 분석하면서 김소운의 日譯版 『朝鮮詩集』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식민지 시인의 고뇌가 유려한 일본어에 가려져 단순히 그리운 고향을 노래하는 시로 해석됨) 이는 조선인에 의해 일본에 전파(번역)된 한국문학 작품을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의 원본과 비판적으로 대조·분석하면서 그 시차를 역으로 짚어내는, 중층적 교차 연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종이 김소운의 『朝

23) 『장혁주 연구』의 '저자의 말'에서 시라카와 유타카는 “당시 한국에서는 ‘친일작가’ 연구란 해 볼 가치도 없다는 분위기였고 더군다나 그것을 일본인이 한다는 데에 상당히 저항감이 있었던 모양이다. (중략)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친일작가’에 대한 연구도 조금씩 활발해져서, 장혁주 이외의 일본어로 창작한 작가들에게도 서서히 관심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기쁜 일이다.”(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 6쪽)라고 언급하고 있다. 저자의 연구 이력과 장혁주 등의 조선인 일본어 작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늠해볼 때, 『발차취』에서 ‘일본어 문학’의 한국근현대문학사 편입과정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4) 이석훈의 작품을 문학사 안에 선별한 과정이나 ‘일본인’으로서 일본어 문학이나 친일문학에 대해 가지는 저자의 복합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또한 추후 과제로 남긴다.

鮮詩集』을 비판하며 『再役 朝鮮詩集』²⁵⁾을 출간했는데, 이처럼 한국시를 둘러싼 시라카와 유타카와 김소운, 김시중 간의 문화횡단적 양상 및 접근방법의 변별성을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인 연구자인 시라카와 유타카의 입장에서 한국근현대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 무의식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내면의식과 기술의 어려움을 몇 개의 문장을 통해 암묵적으로 유추해보고자 한다.

“불행하게도 일본에서는 아직 한국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 실적도 부족하고, 또한 한국 등 본국에서의 연구에서도 일본과의 관련 및 영향을 운운하는 것은,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인 감정 등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말한다는 것은 좀처럼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304-305쪽)

이들(친일적) 작품은 일본어 문학과 함께 ‘해방’ 후 고국에서 혹독한 지탄을 받게 됩니다만,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남의 일이라고는 결말 지을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359쪽)

‘해방’ 후 신세대 작가들은 조선어 자체의 수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도 또한 무거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전에 이웃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우리로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362쪽)

한국의 식민지 구종주국인 일본 국민으로서의 윤리적 자의식, (개별 작품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문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로서의 자세, 그리고 일본인 한국문학연구자가 일본 안에서 가지는 협소한 입지와 일본인에게 한국문학을 전달하는 매개자로서의 중간자적 위치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충돌하고 갈등하는 내면 양상이 문장의 면면에 드러나 있다. 한국근대문학의 형성을 견인한 일본 유학생들의 일본 체형 및 영향관계에 대한 주요 인식과 일제의 강압적 식민정책으로 탄생한 ‘친일문학’에 대한 양가적 감정, 민족어가 아닌 식민의 언어로 문학을 배

25) 金時鐘 譯, 『再譯 朝鮮詩集』, 岩波書店, 2007.

운 한국문학자들에 대한 도의적 부채감 등이 「발자취」를 이끌어간 연구자의 내적 논리가 아닐까. 또한 이러한 의식적 노력과는 별개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현실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보다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거리를 두고 응시하려는 다소 모호한 무의식적 태도가 감지되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결국 ‘한국에서 유학한 일본인 한국문학 연구자’라는 저자의 중층적 위치성에 기반한 끊임없는 교섭과 충돌, 이화와 확장의 문화횡단적 가능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寿勝), 『한국문학을 맛본다(韓国文学を味わう)』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寿勝)의 『한국문학을 맛본다(韓国文学を味わう)』²⁶⁾는 처음으로 독자적 시점으로 일본인이 일본어로 집필한 한국문학사²⁷⁾라 할 수 있다. 시라카와 유타카와 유사하게 1906년 이인직의 『혈의 누』에서부터 근대문학의 맹아기로 설정하여 1980년대 당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의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면서도 독자적인 몇몇 목차를 통해 한·중·일의 비교문화적 접근,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국문학의 계승과 변용에 관한 흥미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인 사에구사 도시카쓰는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와 더불어 대표적인 일본의 제1세대 한국문학 연구자로,²⁸⁾ 도쿄외국어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광수, 김동인, 이태준, 이상, 정지용 등을 비롯한 여러 작가와 그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문학 연구를 진행했으며 ‘조선문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 연구자의 양성과 한일 연구자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²⁹⁾ 일본

26) 三枝寿勝, 『韓国文学を味わう』, 国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 1997.

본서는 1996년도에 저자가 ‘アジア理解講座’에서 10회에 걸쳐 한국문학의 주요 특성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강의한 내용을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정현숙, 앞의 논문, 141쪽.) 본서는 비매품으로, 본고에서는 저자의 강의를 실려 있는 Web판의 출력본을 검토했다. 따라서 인용문의 해당 쪽수는 Web판의 쪽수임을 밝혀둔다. Web판 출처: <http://www.han-lab.gr.jp/~cham/ajiwau/contents.html>

27) 장사선, 앞의 논문, 516쪽.

28) 위의 논문, 512쪽 참조.

29) 야마다 요시코(山田佳子), 「일본 내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문학 연구의 경우-」,

에서 한국문학사를 기술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³⁰⁾ 한국에서도 간행된 여러 저서와 논문³¹⁾ 등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에구사 도시카쓰는 한국의 근현대문학을 아우르는 왕성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한중일 전반을 관통하는 친연성과 변용 과정의 비교문화적 고찰을 수행하는 등, 한국 및 동아시아 문학에 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내고 있다.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주요 관점은 일견 보편타당한 원칙이면서도 한일관계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족주의적 문학관을 이화하는 상호텍스트적, 문화횡단적 실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국문학을 외국문학으로서 연구하라”는 입장이 그것인데, 이는 ‘식민지문학’이라는 자장 안에서 한국의 근대문학을 바라보는 한국인 또는 일본인 연구자의 ‘고착화’된 내면을 냉철하게 직시한 발언으로 보인다.³²⁾ 한 나라(민족국가)의 문

『한국학연구』 1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95-98쪽 참조.

- 30) 오오무라 마스오, 호테이 토시히로, 「한국문학에서 일본은 무엇인가」, 『한국문학평론』, 1998, 가을호, 29쪽.(심원섭, 「이광수 친일 문제를 보는 일본 연구자의 시각-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寿勝)의 이광수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11, 한국문학연구학회, 1998, 283쪽에서 재인용.)
- 31) 사에구사 도시카쓰,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베틀북, 2000.;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사에구사 도시카쓰, 「이중표기와 근대적 문체 형성-이인직 신문 연재 『혈의 누』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15, 한국문학연구학회, 2000.; 「소화집(笑話集)과 화예(話藝)-한국문학 이해를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2004.; 「『冒險小説 十五小豪傑』의 원본은 일본어인가, 중국어인가?-지방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쥘 베른(Jules Verne)의 『十五小豪傑』의 번역 계보-문화의 수용과 변용」, 『사이間 SAI』 제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 32) “이 타자의 입장이야말로 사에구사 선생 득의의 영역이다. 외국문학으로서 연구 하라는 것은 언제나 외국인으로서 존재(라기보다는 관계)하라는 말이다. 그것은 한국에 대해서건 일본에 대해서건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역시 한국문학을 마주한 외국인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듯하다. 오직 이 외국인의 입장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문학은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서 비로소 ‘대일본제국’의 지방문학임을 벗어나게 될 터이다.”(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서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앞의 책, 9-10쪽.) “과거 일본의 행동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기실 자신들이 희생자를 말해도 그냥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한 수단밖에 못 된다는 거야. (중략) 상대방의 문학이나 문화를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 속에 있는 자기 자신들의 각인만을 찾아내려는 것

학이 그 역사와 전통에서 분리될 수는 없지만 ‘식민지’라는 배경을 걷어낸 자리에 존재하는 한국근대문학의 이면을 고찰하고자 하는 사에구사의 시도는 진지하게 귀담아 들을 지점이라 하겠다. 『한국문학을 맞본다』는 저자의 광범위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일본인 대중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문학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선별하여 알기 쉽게 풀어쓴 문학사이다. 전체 목차³³⁾의 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교문화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항목으로 ‘제1장 근대문학과 그 표기’와 ‘제2장 문학작품의 전래와 수용’을 들 수 있다. 제1장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를 중심으로 근대문학의 맹아인 신소설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에구사는 『혈의 누』의 표기법에 대해 흥미로운 가설을 제기한다. 즉 『혈의 누』가 처음 신문에 게재될 때 한자혼용의 세로쓰기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이인직이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서 쓰는 것에 더해 조선에는 종래 없었던 한자의 혼독을 시도, 동시에 한자에 음과 훈의 양쪽의 루비(ルビ)를 다는 세 가지의 표기법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는 이인직이 정부의 파견으로 일본의 신문사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적인 표기법을 시험해본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다.(9-10쪽) 일본적 표기법의 수용을 운운하기에는 소략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일본 파견과 유학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상호 문화교류와 지적 자극의 상관성을 드러내려는 암시적 대목으로 읽을 수도 있다. 『혈의 누』는 신문 게재 후 단행본 상재 시 전문(全文) 한글의 가로쓰기 표기법으로 출간되었는데, 사에구사는 한자를 배제한 한글 전용 혹은 가로쓰기 표기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다. 국어국문운동의 일환으로 대중적인 한글 사용과 표기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민족적 맥락을 누락시킨 평가로 보이지만, 한자에 얽힌 삼국의 상호영향관계를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

이야. 상대방의 역사나 문화 속에 있는 자기 자신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오만과 편협이 아니고 뭐겠나?”(사에구사 도시카쓰,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앞의 책, 12-13쪽) 등의 대목을 통해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한국문학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 33) 본서의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근대문학과 그 표기 제2장 문학작품의 전래와 수용 제3장 판소리가 문학에 끼친 영향 제4장 근대사를 살아간 이광수 제5장 근대조선의 시인들 제6장 『삼국지연의』 『수호전』 애호의 전통과 대하소설 제7장 해방 전까지의 문학 제8장 혼란기의 문학-해방부터 분단국가 성립까지 제9장 1950년대부터 1970년대의 문학 제10장 1980년대 문학”

련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본격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구운몽』, 『춘향전』 등 근대 이전의 한국소설을 논하면서 일본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오토기조시(御伽草子)』를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과 일본 간 문학작품의 전래와 수용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먼저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일본에 전해져 1600년대에 여러 번 발간되고 이후 화각본 『금오신화』가 근대에 이르러 조선에 다시 역수입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중국의 『전등신화(剪燈新話)』와 조선의 『금오신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의 『토기보코(伽婢子)』를 상호비교하고 있다. 사에구사는 『금오신화』가 『전등신화』의 이야기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야기를 섞어 창작한 데 비해 『토기보코』는 『금오신화』의 이야기를 그대로 일본식으로 번역한 것(14쪽)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오신화』의 특징과 의의, 줄거리 등을 설명한다. 또한 일본에서 조선으로 전래된 『금색야차(金色夜叉)』를 변안한 조중환의 신소설 『장한몽』을 고찰하면서 미완성으로 끝난 『금색야차』가 『장한몽』에서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완성되는지, 유교사회인 조선에 수용되기 위해 『금색야차』의 세부적 내용들이 어떻게 변용, 고안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일본에 전래된 『춘향전』이 번역 과정을 통해 그 본연의 맛을 상실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일본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춘향전』의 유머-조선 특유의 풍자와 해학, 골계미, 세련되지 못한 유머-가 일본어 번역에서는 진지한 맥락으로 바뀌어 번안됨으로써 한국문학의 특징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23-24쪽 참조)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서의 1, 2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직·간접적 문화교류와 전승, 변용 과정을 구체적인 문학작품의 분석과 고증을 통해 비교고찰하고 있으며, 국가 간 언어와 문화적 특수성이 상호 영향관계를 어떻게 확장, 이화시켜내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문학이 담지한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변용을 다룬 항목으로는 ‘제3장 판소리가 문학에 끼친 영향’과 ‘제6장 『삼국지연의』 『수호전』 애호의 전통과 대하소설’을 들 수 있다. 사에구사는 제3장 말미에 “한국의 역사와 문학작품의 표기문제, 또한 작품의 전래와 수용방법 등 문학의 주변 이야기를 3회에 걸쳐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본래라면 근대문학과와의 관계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이곳의 100년 정

도의 근대문학을 살펴보는 한,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작품을 읽었을 때의 감상 방법이 바뀌며, 번역 방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33쪽)”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한 나라의 문학을 살펴보는 과정이 비단 표면적인 접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언어와 전통을 숙지했을 때 비로소 상호이해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저자의 기본 인식을 보여준다. 사에구사가 한국근현대문학 연구자로서 한국의 전통과 고전을 천착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관점은 고전문학사와 근현대문학사로 이분화되어 있는 한국문학연구의 풍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사에구사는 한국의 전통문화 가운데 판소리와 장편역사소설의 영향과 친연성에 주목한다. 먼저 제3장에서는 구비문학이자 고대소설의 원류인 판소리가 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춘향가>, <심청가>, <홍부가>, <수증가>, <적벽가> 등 5대 판소리의 줄거리와 주요 요소, 형식적, 내용적 특징을 고찰함과 동시에 <홍부가>, <수증가> 등이 몽골, 인도, 일본의 설화들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언급함으로써 아시아를 아우르는 문학적 친연성에 대해서 비교문화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 문학양식이 현대에 이르러 여러 작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계승, 변용된 양상을, 김지하의 『오적』,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 이문구의 『우리 동네』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판소리의 유머와 해학, 풍자정신, 전통적인 리듬과 독특한 사투리 문장 구사 등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변용 및 확장의 가능성 등을 타진한다. 전통과 근현대문학과의 연계성은 『삼국지연의』, 『수호전』 등의 대하역사소설을 애호하는 한국적 전통의 계승과도 상통하는데, 사에구사는 근대 대하소설의 시초로서 홍명희의 『임꺽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각 장르에 나타난 대하소설 작품으로 김래성의 『청춘극장』, 이기영의 『두만강』, 박경리의 『토지』, 황석영의 『장길산』, 김주영의 『객주』와 『화척』, 조정래의 『태백산맥』,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북한외의 《4,15작가집단》총서 『불멸의 역사』를 거론하고 있다. 사에구사는 한국인이 근대 이후의 역사를 문학의 입장에서 재성찰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한국에서 유행했던 리얼리즘에 기반하여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과 7-80년대의 여러 금기를 타개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관련되어 있다(62쪽 참조)고 분석한다. 저항적 역사 의식과 민중적 문학형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역사적 고난과 모순을 극복해나가

려는 태도가 전통적 문학 양식의 계승과 확장으로 나아간다는 통찰적 시각이 돋보이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친일문학에 대한 저자의 시각과 견해를 다룬 항목으로는 ‘제7장 해방 전까지의 문학’과 ‘제8장 혼란기의 문학-해방부터 분단국가 성립까지’를 들 수 있다. 흔히 ‘암흑기’, ‘공백기’로 불리는 일제 말기의 한국문학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에구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한다.

식민지 시대의 정신사라는 과제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이것들(식민지 치하 민족문학으로서 저항문학이 아닌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인 문학 : 필자 주)을 포함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일부만 예외로 분리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이 공백기를 채우는 문학을 대표하는 것이 소위 친일문학이다. 친일문학이란 대일 협력 문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한국에서는 수치와 굴복의 문학을 의미한다. 이 수치와 굴복은 식민지 지배하의 문인으로서, 도래해야 할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지 못했던 패배감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것을 낳게 한 것이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 지배였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³⁴⁾

위의 발언은 일제 말기 친일문학을 일종의 ‘외적인 현상’이 아닌 ‘내적인 대상의 탐구’로 접근함으로써³⁵⁾ 근대 이후 한국문학의 정신사를 구성해온 저항과 굴종의 복합적 문학양상을 총체적,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사에구사의 의중을 드러낸다. 이는 일본인으로서의 역사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하되,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타자’의 입장에서 ‘외국문학’인 한국문학을 탐구하겠다는, 앞서 살펴본 저자의 연구자적 태도를 재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기왕의 일본인 연구자들이 친일문학의 폐해를 지적함으로써 역으로 그러한 희생자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부채감을 덜려는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저자의 비판(72-73쪽 참조)에 상응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문학을 식민/피식민/항일/친일문학 등으로 규정하여 구

34) 사에구사 도시카쓰, 「1940년대 전반기 소설에 대하여」,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앞의 책, 534쪽.

35) 심원섭, 앞의 논문, 287-288쪽 참조.

획하기보다는 하나의 객관적, 문학적 실체로서 정치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제7장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기존 한국문학사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언급하고 있다. 『문장』, 『인문평론』 양대 잡지를 중심으로 이어져온 일제 말기 한국문학계에서는 『국민문학』, 『조광』, 『춘추』로 이어지는 친일잡지를 근간으로 일본어 창작이라는 강압적 문학 활동만이 허용되며, 이광수를 비롯하여, 김용제, 주요한, 김종한, 이석훈, 최재서 등의 작가들이 친일작품을 산출해낸다. 사에구사는 김종한의 시 「원정(園丁)」이나 이석훈의 『조용한 태풍』에 대해 ‘성실한 친일문학’이라고 평가하며, 최재서의 『민족의 결혼』에서는 일본의 차별적 요소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병일의 「배나무(梨の木)」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운데, 『배나무』는 전부 일본어로 쓰여진 소설집으로, 1944년에 총독부가 허가한 ‘친일문학’이지만 소설 안에서는 국책에 영합하는 내용보다는 판소리에서 볼 수 있는 유머와 민족의식, 또는 『임꺽정』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정신이 엿보인다(73-74쪽 참조)고 평가한다. “고대소설 시대에서부터 조선 문학에 흐르고 있는 것은 일본통치 최후에까지도 여전히 살아 있음”(74쪽)을 포착하며 일제 말기 일본어로 쓰인 작품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 해학과 민중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사에구사의 시선은, 이 시기를 일률적으로 암흑기이자 친일문학의 시기로 규정하는 것의 오류와 협소함을 지적해내고 있다. 해방기의 문학을 다룬 제8장에서도 해방의 기쁨과 국가 건설의 과정을 다룬 작품보다는 해방 시기의 다면적 풍경(김송 「무기 없는 민족」, 김만선 「한글강습회」), 식민지 이후 일본인, 중국인과의 복합적 관계양상(김만선 「이중국적자」, 김래성 「혼혈아(원제 : 민족의 책임)」), 석연치 않은 친일문학자의 자기비판(이태준 「해방전후」, 채만식 「민족의 죄인」)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문학사의 전형적 서술양상을 빗겨가는 다양한 문학사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한국문학을 맛본다』는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비교문화적 고찰,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학적 형식과 주제의 구현, ‘친일문학’을 바라보는 탈경계적 시선 등을 통해 한국문학의 내적 논리와 외연을 두루 살피면서 흥미로운 문화횡단적 계기들을 제공하는 주목할 만한 문학사라 할 수 있다.

Ⅲ. 일본 저술 한국문학사의 문화횡단적 고찰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김사엽, 김동욱, 변재수 등의 ‘고전문학사’ 저술과는 달리, 아직까지 일본에서 ‘한국근현대문학사’를 본격적으로 다룬 문학사 단행본은 출간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임전혜, 시라카와 유타카,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문학사 저술은 일국의 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서술원리, 시대구분, 서술체계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텍스트는 아니다. 임전혜의 문학사는 한국근대문학사와 동(同)시기를 다루되 ‘일본’이라는 다른 토양에서 성장한 ‘조선인문학’의 제 양상을 고찰하고 있으며, 시라카와 유타카와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문학사는 일본인 대중 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을 소개, 전달하는 차원의 약식저술이나 강연을 바탕으로 한, 단속적(斷續的)인 문학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 세 저서를 기존의 남북한 문학사나 자국문학사와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보다는 주요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화횡단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³⁶⁾

기본적으로 시라카와 유타카, 사에구사 도시카쓰는 남한문학사의 서술체계와 시대구분, 작가 및 작품 선정과 유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임전혜의 경우도 근대문학의 기틀을 형성한 유학생 문인이나 조선과 일본을 왕래했던 문학자 중심으로 남한문학사와의 공통부분을 추출해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남한문학사 저술 중에서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와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의 『한국근대민족문학사』를 중심으로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를 점검했다.

북한문학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에 기반한 항일혁

36) 2차 분석 텍스트 및 참고자료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2』, 민음사, 1993.;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백철, 『新文學思潮史』(중판), 신구문화사, 1980.;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사(1-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1981.;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사(7-15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2000.; 加藤周一, 『日本文学史序説』, 平凡社, 1980.(加藤周一, 『日本文学史序説 1,2』, 김태준·노영희 역, 시사일본어사, 1995-1996.)

명문학 전통의 문학사 서술로서 남한문학사와 상이한 서술원리, 시대구분 및 서술양상을 보이며, 해방 이전의 근대작가나 작품을 선별, 평가하는 경우에도 체제의 시기별 추이에 따라 북한문학사 간의 내부적 차이도 두드러지는 편이다. 본고에서는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사(1-4권)』와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사(7-15권)』를 검토했으나 세 저술과의 유의미한 비교 지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항일혁명 전통을 강조하는 북한문학사 안에서 일본과의 관련성이나 친일문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은 없으며(대체로 친일행적보다는 부르주아 반동 작가라는 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대체로 근대문학의 주요 표제로 거론되는 이인직(『혈의 누』)이나 이광수(『무정』)의 경우 등도 누락되거나 비판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기본적인 서술경향이다.³⁷⁾ 반면 이기영 같은 작가의 경우, 일본어 작품의 창작 이력과는 별개로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높은 문학사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민족주의적 관점보다 진보적 프롤레타리아의 사상과 실천성을 우위에 놓는 평가방식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또한 주지하듯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동 및 숙청과정 등에 따라 주요 문학자가 누락되거나 굴절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한국의 근현대문학을 고찰하는 상이한 평가기준과 서술체계 아래서 남북한 문학사와 위의 세 저술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의 작업이라 하겠다.

일본문학 및 일본문학 연구방법과의 문화횡단적 관련성을 살펴보면,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경우를 중심으로 몇 가지의 가능성을 추출해볼 수 있다. 가토 슈이치(加藤周一)의 『日本文学史序説』에 의하면 일본문학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일본 문화 속에서는 문학과 조형 미술의 구실이 중요하며, “각 시대의 일본사람은 추상적인 사변 철학보다 주로 구체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그 사상을 표현해 왔다”³⁸⁾는 것이다. 주자학에서 보듯이

3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사』에는 이인직 자체의 언급이 누락되어 있으며(신소설의 경우 이해조의 『화의 혈』 등을 중요하게 다룸) 이광수도 반동 작가로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반면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사』에는 이인직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추가되어 있으며 이광수의 경우에도 『개척자』 등의 작품이 긍정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사』는 최근에 집대성된 문학사인 만큼 저술 분량도 상당하며 기존에 누락되어 있던 다양한 근대작가들을 대거 수용,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문학사적 평가를 조정할 부분도 다수 눈에 띈다.

포괄적인 체계를 향한 의지가 철저했던 중국 전통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포괄적 체계가 분해되어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실천 윤리와 정치학으로 환원되었으며, 이러한 사상과 철학이 문학을 통해 구현되었다는 것이다.³⁹⁾ 사에구사가 제1장에서 전근대문학을 다루면서 조선에는 양반의 주자학적 저술이 대부분이며 일본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나 『오토기조시(御伽草子)』 같은 소설작품은 거의 없다고 언급하는 대목이나 『춘향전』이나 『홍길동전』 등의 고대소설이 위의 일본 소설문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지점은 아마도 이러한 일본문학의 전통에 기대어 한국문학을 고찰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과 유사하게 주자학적 전통과 철학 체계를 활성화시켰던 한국의 경우, ‘문학’에 대한 개념과 장르적 특성이 일본과 상이하므로, 일본의 문학사적 전통의 기준에서 그 성과를 대비하는 것은 일견 일본인 문학자의 입장, 혹은 일본인 독자의 시선을 반영한 언급으로 보인다. 일본문학의 두 번째 특징은 문학 형식의 역사적 발전 과정 안에서 “옛것을 새것으로 바꾸기보다도 옛것에 새것을 덧붙여 간다는 발전 형태가 원칙을 이루고”⁴⁰⁾ 있다는 것이다.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되거나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덧붙여지는 과정 속에서 일본 문학 전체에 통일성(역사적 일관성)과 표현 형식이나 미적 가치의 다양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⁴¹⁾ 이처럼 문학적 전통이 끊임없이 현재화되면서 그 의미를 증폭해가는 양상을 사에구사는 ‘제3장 판소리가 문학에 끼친 영향’과 ‘제6장 『삼국지연의』 『수호전』 애호의 전통과 대하소설’ 부분에 전폭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전통적 문학양식의 형식적 계승과 변용, 주제적 유형성의 도출 등을 통해 역사를 거슬러 오르는 문학사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추출하고자 하는 사에구사의 연구방법이 비단 일본만의 독자적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문학의 자장 아래서 한국문학을 재구성한 유의미한 문화횡단의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사에구사를 비롯하여 시라카와 유타카 등의 연구방법론에 내재한 일본학계와의 연관성은 심원섭의 논의⁴²⁾를 참고

38) 加藤周一, 『日本文学史序説 1』, 김태준·노영희 역, 앞의 책, 9쪽.

39) 위의 책, 9-11쪽 참조.

40) 위의 책, 12쪽.

41) 위의 책, 11-13쪽 참조.

42) “사에구사의 연구 방법은 본격적인 작가론적 연구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로 남한문학사에 기반하여 임전혜와 시라카와 유타카,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문학사가 내포한 문화횡단적 실천 양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세 저자의 일본 저술 한국문학사는 ‘민족문학사’를 근간으로 한 기존의 한국근현대문학사를 ‘식민지 경험’과 ‘국가민족주의’라는 자장에서 이화시켜 다면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한국근대민족문학사』는 기본적으로 ‘근대민족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사회역사적 토대를 기반으로 진보적 민족문학의 전통과 연속성에 주목하여 문학사를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현대문학사』 또한 ‘식민지 근대성’과 ‘근대적 문학양식’에 바탕한 통합적 문학사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민족문학’이라는 강고한 프레임이 지금까지의 한국문학사를 이끌어온 근본적 기술원리라고 했을 때 위 세 저술은 이러한 기본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다양한 인식방법을 보여준다. 임전혜의 문학사는 일본유학생들과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문학운동 안에서 일본의 사상, 문학과 의 능동적인 교섭과 상호이해, 연대의 지점들을 짚어내면서 일국적, 속지주의적인 국가내셔널리즘을 탈피하여 한국과 일본, 재일조선인 간의 문화횡단과 접합의 지점을 모색하는 탈경계적, 탈국가적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친일문학의 내면적 탐구 및 전통과 현대문학의 연속성에 주목한 사라카와와 사에구사의 문학사는 한국문학사를 관통하는 연속성에 기반하여 고유의 정신사와 보편적 논리를 재구함으로써 객관적 실체로서의 한국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몰역사, 탈역사의 위험성은 경계하되 ‘외국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의 입지점을 정립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문학의 일면성과 제한성을 탈피하여 세계문학의 자장 안에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정치·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시기구분이 이루어지고 주요 문학자의 문학세계를 하나의 표제로 활용하는 한국문학사의 기본적

다. 이 방법이 일본의 현대 문학 연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연구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데, 일관성과 유형성 도출을 중심으로 자료 전체의 표면과 이면을 꼼꼼하게 검토해가는 점, 작가에 대한 전기적 검토가 철저한 점, 그리고 그 속에서 작가의 숨겨진 내면과 그 주관적 동기들을 도출해내려는 점 등이 그것의 뚜렷한 증거에 속한다.”(심원섭, 앞의 논문, 293쪽.)

서술양상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대체로 사회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특징을 총론으로 제시하고 시, 소설, 극문학, 평론 등 제 장르별로 나누어 시기별 주요 문학자의 생애와 작품을 소개하는 식으로 서술되는 기존 한국 문학사와 달리, 언어, 이념, 문단, 잡지, 문학사적 사건과 논쟁, 전통의 계승과 변용, 대중문학 등 다양한 문학자와 문학사적 사건, 영향관계를 선별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세 저술을 통해, 일관되고 보편적인 서술체계의 평면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미시적인 문학사 서술의 제 형태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비교문학적 관점의 수용이다. 세 문학사 모두 한일, 또는 한중일의 문학적 개연성과 영향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통찰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과 근현대를 잇는 문학적 연속성을 발판으로 종횡으로 천착되는 비교문학적 고찰을 수행한다. ‘민족문학사’ 정립이라는 문학사적 사명감은 그 구심력만을 희구하다보면 종래에 고립되고 정체된 한국문학사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문명사적 관점에서 사회, 역사, 문학적 연관성, 교섭과 연대의 실천에 기반한 문학적 제 양상을 비교문학적으로 검토하고 문학사 안에 비판적으로 수용, 유통시킴으로써 한국문학사가 가진 폐쇄성과 협소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족문학사’의 밑바탕에는 전 세계로 흩뿌려진 해외 한인 이주·이산문학사가 존재한다. 따라서 외부를 향해 확장되고 열린 문학사 서술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학사를 아우르는 ‘매개자’로서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타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계기의 단초를 세 문학사를 통해 궁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문학사의 여백을 메우고 보완하는 재일조선인문학, 일본어문학의 발견은 한국근현대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고 토대를 풍부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친일문학을 필두로 기존의 한국문학사에서 누락되었던 일본어/일본 소재 작가와 작품의 발굴, 문학사적 고찰은 식민지 시대의 한국근대문학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학적 집적물의 확장과 축적을 의미한다. 세 문학사에서 다룬 김여제, 김용제, 김종한, 이석훈, 최병일, 김송, 김만선⁴³⁾을 위시하여 문학사에서 사라지거나 외면되었던 작가,

43)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와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에는 이들의 이름이 모두 누락되어 있으며, 권영민, 『한국현대문학

작품들을 발굴, 재검토하고 문학사 안에 편입시키는 과정을 통해 총체적인 한국문학사의 계보를 지속적으로 완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는 말

한국에서의 일본문학 번역이나 연구 성과가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일본에서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 현황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며 특정 연구자에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런 와중에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사에구사 도시카쓰, 오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등의 제1세대 한국문학 연구자와 세리카와 테츠요(芹川哲世), 시라카와 유타카,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 등의 제2세대 한국문학 연구자, 그리고 임전혜, 윤학준 등의 재일조선인 문학연구자 들의 평생을 건 연구 작업들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며, 창발적 한국문학 연구와 종합적 한국문학사 기술에 있어 큰 참조점이 된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 성과 중 한국근현대문학사를 저술한 세 연구자의 저서를 중심으로 그 인식방법 및 서술양상의 특징과 문화형 단적 실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임전혜(任展慧)의 『일본에서의 조선인문학의 역사-1945년까지(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学の歴史—1945年まで)』는 일본유학생들의 문학 활동과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산출된 조선인 문학을 시기별로 고찰하면서 한·일간의 능동적인 문화교섭과 상호이해, 정치적 연대의 지점들을 짚어낸다. 다음으로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의 「조선근대문학의 발자취(朝鮮の近代文學の歩み)」는 근대문학 형성과정에서의 한중일 삼국의 동시성과 연관성에 주목하고 일본어 문학과 친일문학 등을 비중 있

사 2』에는 친일문학자 명단에 이석훈의 이름만 간략히 명기되어 있다. 백철의 『新文學思潮史』에는 최병일을 제외한 모든 문학자의 이름이 몇몇 작품명과 함께 언급되어 있다. 1947년에 상권, 1949년에 하권이 발행되고 1980년에 증판합본이 나온 백철의 『新文學思潮史』에서 언급한 작가, 작품들이 후대 문학사에서 선별, 누락된 경위를 살펴보는 것도 한국문학사 저술의 흐름을 고찰하는 데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게 다루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계에서 충돌하는 매개적 연구자로서의 중층적 위치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寿勝)의 『한국문학을 맛본다(韓国文学を味わう)』는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비교문학적 고찰,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학적 형식과 주제의 구현, ‘친일문학’을 바라보는 탈경계적 시선 등을 통해 한국문학의 내적 논리와 외연을 두루 살피는 흥미로운 문화횡단적 계기들을 제공한다.

이들 문학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화횡단적 실천 양상은 첫째, ‘민족문학사’를 근간으로 한 기존의 한국근현대문학사를 ‘식민지 경험’과 ‘국가민족주의’라는 자장에서 이화시켜 다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존 한국문학사의 서술양상을 보완하는 입체적이고 미시적인 문학사 서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 셋째,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비교문학적 관점의 수용을 통해 확장되고 열린 문학사 서술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 넷째, 재일조선인문학, 일본어 문학의 발견을 통해 한국근현대문학사의 외연을 넓히고 토대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임전혜의 문학사는 재일조선인문학 안에서나 한국문학 연구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계 안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는 저서이며 시라카와 유타카나 사에구사 도시카쓰의 문학사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핵심만 소략하게 소개된 것이 연구의 전부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소 상세하게 각 문학사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 분석하고자 했으며, 저서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중심으로 방법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했다. 연구목적이 일본 저술 한국문학사의 한국근현대문학 인식과 서술양상을 살펴보는 것이었으나, 임전혜나 시라카와의 경우 해방 이전의 근대문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에구사의 경우에도 근대문학에 큰 비중을 둔 저서이므로 주로 19세기 말에서 1945년까지의 근대문학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해방 이후의 현대문학 부분을 거의 다루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이며, 이는 이후 한국현대문학에 관한 관련 논저와 연구 작업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충해나갈 과제로 남긴다.

이제 한국문학은 비단 한국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토되는 세계문화의 유산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문학사 기술이라는 과업은 한국이라는 내부를 성실하고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엄중한 시선과 더불어 세계를 향해 트인 유

연한 시야를 확보해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해외에서 저술된 한국문학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교류하는 작업은 따라서 한국문학사가 세계문학사의 자장 안에서 자유롭게 횡단하고 유행하는 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任展慧, 『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学の歴史—1945年まで』, 法政大学出版局, 1994.
- 白川豊, 『朝鮮の近代文學の歩み』, 九州産業大學公開講座11, 九州産業大學出版會, 1997.
- 三枝寿勝, 『韓国文学を味わう』, 国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報告書, 1997.
(Web판 : <http://www.han-lab.gr.jp/~cham/ajiwau/contents.html>)

2. 단행본

- 가토 슈이치(加藤周一), 『日本文学史序説 1, 2』, 김태준·노영희 역, 시사일보어사, 1995-1996.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2』, 민음사, 1993.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 류준필,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 소명출판, 2013.
- 백 철, 『新文學思潮史』(중판), 신구문화사, 1980.
-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寿勝),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 베틀북, 2000.
-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寿勝)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사(1-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1981.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사(7-15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2000.
-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 『장혁주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3. 논문

- 곽형덕, 「경계의 모호함과 평가의 단호함을 묻다-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 연구-일어가 더 편했던 조선작가 그리고 그의 문학』, 『사이間SAI』 제9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0.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寿勝), 「이중표기와 근대적 문체 형성-이인직 신문 연재 『혈의 누』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15, 한국문학연구학회, 2000.

_____, 「소화집(笑話集)과 화예(話藝)-한국문학 이해를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2004.

_____, 「『冒険小説 十五小豪傑』의 원본은 일본어인가, 중국어인가?-지방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_____, 「쥘 베른(Jules Verne)의 『十五小豪傑』의 번역 계보-문화의 수용과 변용」, 『사이間SAI』 제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서재곤,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연구 시론」, 『세계문학비교연구』 18, 세계문학비교학회, 2007.

_____, 「일본어판 한국문학사 재고」, 『일본언어문화』 12,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08.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 「廉想涉과 日本」, 『국제어문』 제58집, 국제어문학회, 2013.

_____, 「韓國近代文學草創期の 日本的影響-文人들의 日本留學體驗을 中心으로-(이인직 · 최남선 · 이광수 · 김동인 · 전영택 · 염상섭 · 현진건)」,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_____, 「韓 · 中 · 日 近代小説에 나타난 <家>」, 『한국문학연구』 1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5.

심원섭, 「이광수 친일 문제를 보는 일본 연구자의 시각-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寿勝)의 이광수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11, 한국문학연구학회, 1998.

야마다 요시코(山田佳子), 「일본 내 한국학의 현황과 과제-문학 연구의 경우」, 『한국학연구』 1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장사선, 「일본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역사적 반성 및 협동 연구 전망」, 『한국현대문학연구』 30, 한국현대문학회, 2010.

정현숙, 「북한, 중국, 일본의 한국현대문학사에 대한 인식(1)」, 『인문과학연구』 2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 ABSTRACT

Linguistic, Cultural, and Historical Momentums
through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Focused on the Recognition and Descriptive Aspect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Japan—

Yoon, Song-ah

This study examines ways of recognizing and aspects of describing Korean modern literature revealed by each literary history from the viewpoint of 'transculturation', focusing on Lim Jeon-Hye's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 Japan until 1945』, Shirakawa Yutaka's 『Footstep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Saegusa Toshikatsu's 『Taste of Korean Literature』 from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Japan. First, Lim Jeon-Hye periodically examines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Japan, focusing on literary activities of Korean students in Japan and the proletarian literature movement, and addresses points of active cultural negoti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political solidarity between Korea and Japan. Shirakawa Yutaka focuses on the concurrency and connection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process of modern literary formation, covering Japanese language literature and pro-Japanese literature with great care, and describes the middle-layer position as a mediating researcher in the conflicting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Japan. Saegusa Toshikatsu provides interesting transcultural momentum in exploring internal logic and denotation of Korean literature via comparative literature review encompassing East Asia, implementation of literary forms and themes connecting tradition and modernity, and an out-of-boundary point of view to overlook 'pro-Japanese literature', etc. Transcultural aspects in this literary history to examine are as follow. First,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based on ‘national literature history’ is catabolized in the magnetic field of the ‘colonial experience’ and ‘national nationalism’ and considered in multifaceted context. Second, they provide the possibility of three-dimensional and micro-narrative description of literature that complement the narrative aspect of existing Korean literature history. Third, they provide an opportunity to expand and open the description of literature history through acceptance of comparative literary perspectives encompassing East Asia. Fourth, through discovery of Korean-Japanese literature and Japanese language literature, they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enriching foundations.

Key Words :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Japan, Lim Jeon-Hye, Shirakawa Yutaka, Saegusa Toshikatsu, transculturation

■ 논문접수일 : 2017. 8. 10

■ 심사완료일 : 2017. 8. 31

■ 게재확정일 : 2017. 9. 1